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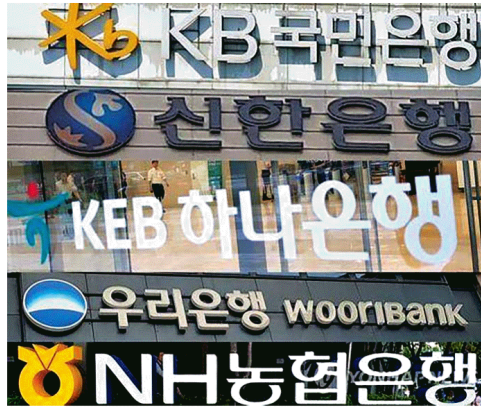
5대 금융지주 여전히 이자늘음... 非이자 수익의 5배

양정숙 의원 금융권 자료 결과 지난해 이자로 44조9천억 벌어 지난해 5년간 순위은 예대 마진 의존 非이자 비중 커온 JP모건과 비교

국내 주요 금융지주들이 수익을 예대 마진(예금-대출 금리 차이)에 의존하고 있다는 국외의 지적이 나왔다. 3월 국회 정부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지주회사 수익 등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5대 금융지주사(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는 지난해 이자 이익으로 44조 9000억 원을 벌어들였다. 반면 비이자 이익은 9조 5000억원에 그치면서 이자 이익이 비이자 이익의 5배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 동안

의 수익 현황을 살펴봐도 5대 금융지주사의 이자 이익은 207조를 기록했지만, 비이자 이익은 40조에 불과했다. 5대 금융지주사의 이자 이익은 매년 상승했으나 비이자 이익은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5대 금융지주사가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보다 순위은 예대 마진에 의존하는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금융 선진국인 미국의 상황은 달랐다. 미국의 대표적인 은행인 JP모건체이스는 지난해 비이자 이익이 전체 금융 수익의 57%(693억 3800만달러)로 나타났다. 이자 이익의 43%(523억 1100만달러)보다 많았다. 지난해 6년 동안 넓혀 봐도 JP모건 체이스는 비이자 이익(3480억 1900만달러)이 이자 이익(3153억 5800만달러)을 능가했다. 양 의원은 "국내 5대 금융지주사의 비이자 이익이 최근 6년 새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JP모건체이스는 비이자 이익의 증가 속도가 이자 이익보다 빨랐다"

며 "우리 금융지주사들은 국민의 예금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대출을 받아 예대마진을 통한 순위은 이자이익을 올리는 데만 집중했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국내 금융지주사들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국내 금융지주사가 세계적인 금융회사로 성장하려면 예대 마진에 의존하기보다 진짜 실력을 알 수 있는 비이자 이익 부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노력도 동봉되어 하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금융당국도 2016년 8월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을 발표한 후 금융지주사의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제고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 같다"며 "금융지주사의 예대마진 수익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금융기관이 투자은행 기능을 포함한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가질 수 있도록 금융지주사의 육성 방안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호 기자 dragon@sportbiz.co.kr



5대 금융지주사가 지난해 벌어들인 이자 이익이 비이자 이익의 5배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사 통신품질평가 부정행위 의심사례

김영주 의원 국감자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유무선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중 이동통신사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년간 총 7건의 품질평가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통신발전기법 등에 따라 1999년부터 국내 유무선 통신서비스에 대해 품질평가를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LTE, 5G와 같은 무선 통신서비스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맡긴 외주업체 소속 전문 측정요원들이 차량 및 도로에 이동통신사(SKT, KT, LGU+)에 대한 품질평가를 한다.

품질평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외주업체 소속 전문 측정요원들이 평가대상(우지), 동선 등에 대한 비밀사항서를 작성하고 진행하지만, 지난해 3년간 총 7건의 품질평가 부정행위 의심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평가 방해행위는 크게 미행, 방해전파, 차량이동지속국을 통한 다요로드 및 업로드 속도 조작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따르면 실제로 2020년 7월, 전북 군산시 품질평가 현장에서 KT 및 LGU+(엘지유플러스) 직원이 미행 중 적발됐고, 같은 해 10월, 강원 원주시 Y대 캠퍼스와 경기 고양시 동두천 보건소에서 LGU+(엘지유플러스) 이동기지국 차량이 적발된 사례가 발생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해당 부정행위 의심사례로 적발된 이동통신사 직원 등 차량에서 장미봉, 방해전파 등의 일이 있는 것을 확인 후 품질평가를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의 통신 품질평가 부정행위 의심사례가 현장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평가성적을 고의로 조작하려는 시도는 있었는지 재발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기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오늘 복지부 국감 장관 자적 참석

여야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130여일째 공석이던 복지부 수장 자리가 채워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조 후보자는 오는 5일 열리는 복지부 대상 국감에 1차관이 아닌 장관으로 참석한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기획재정부 출신인 조 후보자에 대한 보건의료분야 전문성 부족이 도마에 올랐다. 실제 조 후보자는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전공의 80시간 근무와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전문성 부족을 드러낸 바 있다. 또한 야당의 ▲자녀 위장전입 및 기부 부리 의혹 ▲광무원연금 부당 수령 등의 의혹 제기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보고서 채택 없이 인사청문회가 종료됐다.

다만 조 후보자는 "기재부 출신이기 때문에 (정책 추진 시) 더 거시적이고 장기적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고 같은 작업을 해도 예산을 아껴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며 "또한 인적 네트워크를 잘



조규홍 장관

용해 필요한 예산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장점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면서 "지난 4개월 동안 복지부 차관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현장을 찾아 많은 것을 느꼈다"며 "정부 정책 방향이 책상에서 만들어져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향후 장관으로 임명되면) 현장에 맞는 실천 가능한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복지부 내부) 우려를 불식시키고 가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5~6일 이틀간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감을 진행한다. 오는 11일부터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복지부 산하기관 국감이 시행될 예정이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종합감사로 출세 일정을 마무리한다.

복지부 국감에서는 주요 현안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을 벌여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최근 야당에게 출범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명부' 논란과 관련해 책임 소재를 가릴 것으로 예상된다. 변동호 기자 bjd@sportbiz.co.kr

새마을금고 임직원 비리 6년간 640억 손실

용혜인 의원 금융사고 분석 횡령·배임·사기 등 6년간 85건 피해액 회수율도 35%에 그쳐

서민 금융기관을 지향하는 MG새마을금고에서 최근 6년간 발생한 임직원 금융비리 사고로 피해액만 64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횡령·배임·사기·알선수채 등 금융비리가 85건으로 집계됐다. 금융사고 피해액은 640억 9700만원에 달했다. 이중 35.2%인 225억 7700만원만 회수됐다.

사건 유형별로는 횡령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임(12건), 사기(8건), 알선수채(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금액 역시 횡령에 의한 것이 385억 5800만원으로 가장 큰 액수를 차지했다. 이어 사기(144억 3100만원), 배임(103억 3800만원), 알선수채(7700만원) 순으로 드러났다. 금융비리에 가담한 임직원은 총 110명으로, 이 가운데 46명이 이사장·상무·전무 등 임원에 해당했다.



MG새마을금고에서 최근 6년간 발생한 임직원 금융비리 사고로 피해액만 64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이 13건(172억 8200만원)으로 피해건수와 피해금액 모두 가장 많았다. 부산 10건(124억 9400만원), 서울 10건(49억 900만원), 전북 9건(35억 7300만원), 경북 9건(28억 700만원) 등 순이었다.

단일 사건에 따른 피해액이 10억원이 넘는 사건도 10건이나 발생했다. 2020년 서울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전무가 27억 8000만원을 횡령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회수된 금액은 3억 원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광주·전남의 새마을금고에서 한 전무가 권한 없이 채무 지급보증서를 작성·날인해 업무상 배임으로 28억 600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에 대한 징계조치는 감봉 3개월에 그쳤다. 각종 금융비리에 노출되는 금융기관으

로서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시중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엄격한 검사와 제재를 받지만 새마을금고는 그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용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감독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반복되는 사고에도 실효성 없는 행정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다른 상호 금융기관처럼 전문성 높은 금융감독이 새마을금고를 감독하게 하고 금융감독정보 또한 충실하게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역시 새마을금고 비위에 주목했다. 정 의원은 새마을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년간 새마을금고 지역구에서 발생한 비위(횡령·배임·대출사채금 수채·폭언·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 행위는 총 118건, 사고 금액은 약 641억원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새마을금고에서 비리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관리·감독 체계가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부실하기 때문"이라며 "새마을금고중앙회 감독의 주체를 행정안전부에서 금융감독원으로 이양하는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정호 기자 dragon@sportbiz.co.kr

부자의 탄생과 몰락에서 배우는 투자 전략 부자의 역사를

옵부터 제프 베조스까지 지구상 최고 부자들의 히스토리오그래피

부자의 삶을 알아야 부의 원리를 알고 자산의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

『부자의 역사』는 부자들의 성공만 아니라 그들이 겪은 일생의 실패와 좌절에서도 슈퍼리치의 존재 이유를 찾는다. 부자는 실패에서 성공을 발견한 전회위부의 사람이며 태생적 한계를 결함에서 진정한 성장을 일군 불체출의 위인이다. 이 책을 통해 그간 베일에 싸여 있던 부자들의 독특한 삶과 특유의 판단력을 들여다볼 수 있다.

피톤북
원고집수 phytonbook@naver.com | 070-7362-3488

저자 최정호는 한국자산투자컨설팅 대표다. 증권업계의 젊은 기수로서 전문가 평가제를 투자 컨설팅에 도입해 3년 연속 540%가 넘는 고수익률을 경신했다. 한국자산투자컨설팅은 2019년, 2020년 연속 수익률과 정보제공 서비스 부문에서 '소비자가 뽑은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